

“코로나는 기회다” 손태승의 역발상

〈우리금융그룹회장〉

우리금융그룹 경영전략 워크숍
“진정성 통해 고객 신뢰도 높여야”
고객중심 경영·디지털 혁신 등 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세상의 변화는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 3일 우리은행 본점 시너지홀에서 언택트(Untact·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2020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그룹사 임직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적극 고려해 온·오프라인 연계 방식의 워크숍으로 간소화해 진행했다. 워크숍에는 손태승 회장 및 자회사 CEO 등 50여명의 그룹사 주요 임원은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본부장급 등 다른 참석 대상 직원은 비공개 유튜브 방송을 통해 비대면 채널로 참여했다.

손태승 회장은 “고객은 물론 기업이나 직원들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며 “코로나



지난 3일 본점 시너지홀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하반기 핵심 경영전략을 제시했다. /우리금융그룹

로 인해 예상되는 건전성 악화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매우 중요하지만 언택트와 같은 세상의 변화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손 회장은 그룹의 하반기 핵심 대응전략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 ▲고객중심 경영 강화 ▲디지털 혁신 ▲경영효율화 ▲그룹 확장 및 시너지 등을 제시하며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것을 역설했다.

손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비대

면 트렌드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고객을 향한 진정성을 통해 그룹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라며 자회사는 고객가치 혁신을 강화하고 임직원들의 마음가짐도 새롭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이날 행사를 간소화하고 절감한 비용을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했다. 안성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인근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에 1억원을 기부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기보, VC 추천기업에 최대 50억 보증

벤처기업 투자매칭 특별보증 시행
K-유니콘 프로젝트 핵심사업
최대 100억 투자유치 효과 전망

기술보증기금이 벤처캐피탈(VC)들의 추천 기업을 추가로 보증하는 상품을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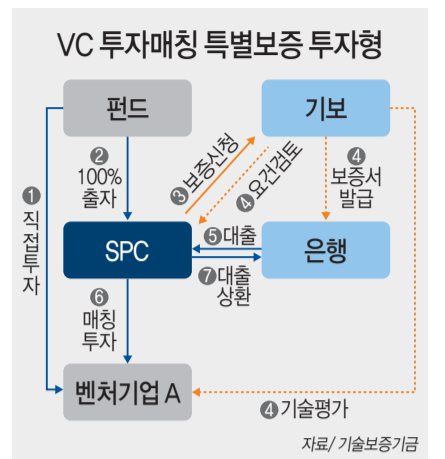
VC로부터 투자받은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 초기 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가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보는 투자와 보증을 매칭한 레버리지 프로그램인 ‘VC투자매칭 특별보증’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관련 상품은 지난 3일부터 내놨다.

‘VC투자매칭 특별보증’은 예비유니콘 특별보증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벤처4대강국 실현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 핵심사업 중 하나다.

펀드가 작더라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VC)이 추천한 기업에 기보가 최대 50억원까지 보증하거나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투자를 추가 지원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이다.

기보는 앞서 우수 민간 벤처캐피탈 60여개사로 구성된 ‘기보VC파트너스’를 구성한 바 있다. 이들 VC파트너스를 통해 민간이 투자하고 추천한 기업에 기보가 전폭 지원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VC 투자매칭 특별보증을 통해 자금에 목마른 기업들은 벤처캐피탈의 투자에 기보의 보증이 더해지면서 최대 1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대출형’의 경우 VC파트너스가 추천한 최근 6개월 이내에 2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기보가 최대 50억원을 한도로 보증 지원한다.

아울러 ▲보증비율 상향(85→95%) ▲고정보증료 1%(보증 1.2%) ▲20억원 이내에서는 투자금액 또는 추정대출액의 2분의1까지 지원하는 등 우대 사항을 제공한다.

‘투자형’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벤처펀드에서 100% 출자한 SPV를 설립하는 경우 이를 대상으로 최대 5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저축銀, TV광고 규제 풀렸지만 ‘온라인’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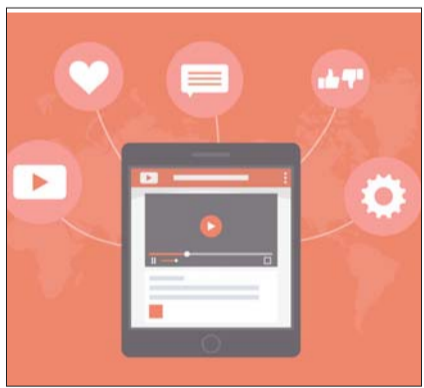
하루종일 TV광고 송출 가능
SNS·유튜브 홍보효과 극대화
요리 레시피, 가요 등 콘텐츠 제작

밤 10시 이후에나 저축은행 TV광고가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최근 5년만에 저축은행 광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하루 종일 TV 광고 송출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그간 저축은행은 TV 광고 규제를 받으면서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유튜브를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규제를 극복했다는 입장이다. 당국의 뒤늦은 규제 완화에 대해 업계 분위기가 냉랭한 이유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저축은행 업계 가운데 TV광고를 하는 저축은행은 OK저축은행 한 곳에 불과하다.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JT천애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은 SNS나 유튜브를 통해 각기 다른 콘텐츠를 기획하고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홍보의 트렌드가 5년 전과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앞서 저축은행들은 TV 광고 규제에 맞서 각종 돌과귀를 찾아 TV대신 유튜브로 활동 영역을 넓혀왔



/유튜이미지

다. 현재 유튜브 트렌드에 많은 산업군이 도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저축은행들이 TV광고로 다시 눈을 돌릴 필요가 딱히 없다는 분석이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3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SBI저축은행은 유튜브를 통해 상품설명과 각종 캠페인, 당을 충전할 수 있는 요리 레시피, 과거 유행했던 대중가요를 담은 콘텐츠 등을 유튜브에서 선보이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최근 배우 신성록을 모델로 앞세워 각종 영상을 공개했으며 ‘짤테크톡’이라는 주제로 재테크를 주제로 한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다.

최근에는 JT천애저축은행의 모기업

J트러스트 그룹이 자사 채널 ‘점프TV’를 개설했다. 공식 브랜드 유튜브 채널 ‘J TRUST’와는 다른 성격의 채널을 또 하나 기획한 것이다. 새로 만들어진 채널에서는 광고 모델인 배우 이훈과 회사 직원이 함께 출연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모습을 영상을 선보이고 있다.

또 2016년부터 저축은행 업계 최초로 진행해 오고 있는 반려견 마케팅의 장점을 살려 반려견 셀프 미용 도전, 반려견 소독제 만들기 등의 영상 또한 제공 중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TV광고보다는 유튜브 등 SNS를 통한 홍보가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 최근에서야 풀린 TV광고 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TV광고 규제를 받기 전에는 저축은행 사대로 인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TV광고가 필요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자산건전성도 높아지고 업계 이미지도 개선되면서 TV광고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유튜이미지

자칭 주식전문가가 종목 추천... ‘리딩방’ 주의

금감원 Q&A

Q. 주식투자에 관심이 있어 주식 관련 인터넷카페 등을 자주 방문하곤 합니다. 최근 주식 전문가가 종목 추천 등 투자 조언을 해주는 채팅앱 단체 대화방을 추천받게 됐습니다. 전문가가 추천해준다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이런 전문가가 운영한다는 단체 채팅방 믿을만 할까요?

A.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더’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돼 있습니다.

유선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리딩방 운영자들이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주식리딩방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및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했다가 의도치 않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영석 기자

NH농협銀 ‘DT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NH농협은행이 고객과 함께하는 ‘DT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 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비대면 채널(농협인터넷뱅킹, NH스마트뱅킹, 올원뱅크)에 대한 ▲ 서비스·디자인 개선 의견 ▲

(신규) 금융상품 아이디어 ▲ 신규 서비스 아이디어(디지털 신기술, 킬러 서비스 등)이며 각 비대면 채널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고객은 100만원의 상금을,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상품권(1만원)을 제공한다. 선정 결과는 8월 21일 별도 통지 예정이다.

농협은행 장승현 수석부행장은 “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고객 의견을 금융 서비스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취지”라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시스템 개선과 혁신 상품·서비스 도입에 활용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